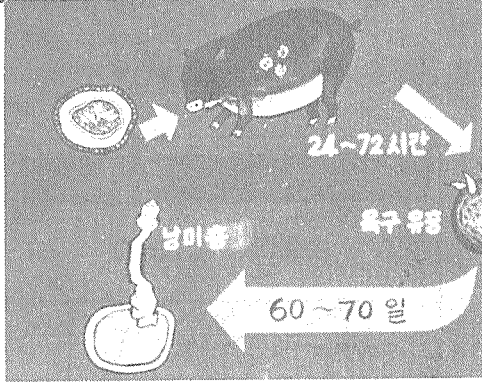


이런 기생충을 아십니까 ②

소·돼지고기에 기생하는 촌충.



촌충
애벌레로 인한
人生失望 (인생실망)



이준상

『우리집 큰애이며 장손인데 무슨 별레의 유충인지 뇌에 들어가서 이모양이야요. 유명하다는 의사선생님 여러분을 찾아다녔지만 별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치료될 수 없나요.』 아주 건강하게 생기고 미남청년으로 30세 전후로 보였는데, 일

류대학을 졸업하고 신문기자로 있다가 퇴직하고 이병원 저병원 10여군데를 전전하면서 실의에 찬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는 말을 노인사에게 듣는 순간 찡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참 가까운 사람인데 연구실에 와서는 자기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입도 돌아가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촌충에 의한 질병 특히 유구조충의 애벌레로 인한 유구낭미충증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상당히 많

아 문제시되는 질병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뇌에 낭미충증이 생겨서 간질발작증상까지 생기면 보통 3 가지 후유증이 생김을 자주 보아왔다.

첫째 사회에서 버림을 받기가 혼하다. 정상인으로 생각하던 사람이 갑자기 간질을 할때 주위 사람들의 냉소를 본인이 이겨내기 힘들다는 사실은 흔히 보아왔으며 이로인해 직장을 떠남은 혼한 일로 생각된다.

둘째 가정 특히 부부사이가 이혼으로 치닫는다. 정상인으로 생각되던 남편이나 부인이 어느날 간질발작을 하였다고 생각해 보라. 물론 맨 처음에는 사랑이 감싸 줄 수 있다하더라도 시일이 지나면 아마 무서워서 별개로 치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본인생활이 실의로 가득차게 된다. 어떤 병이 있으면 치료를 받는다는데 수술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회복될 것을 생각하는 것이 보통생각이다.

그러나 뇌낭미충으로 인한 간질발작이 있을때에는 암의 선고와 같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드리는 데에는 4 가지의 심정과정을 거치는 것 같다.

우선 자기와 무관하다고 생각되던 것이 막상 자기의 것이라고 할때 그저 덤덤히 듣고만 있는 “쇼-크”기가 있고, 다음은 며칠밤을 뜯눈으로 새우며 내가 이렇게 멍청한데 아마 진단을 잘못 내린 것일거라고 생각하는 “부정”기간이 있다. 그후 얼마간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왜 이런병을 주었느냐고 하늘을 쳐다보며 울부짖는 “홍분”기가 따르고 마지막

이런 기생충을 아십니까②

소·돼지고기에 기생하는 촌충.

은 체념과 실망으로 차인 “우울”기로 접어 들어간다고 한다.

이와같이 사회, 가정, 자신 3 가지가 엉망일진대 인생전체가 실망스러운 것은 딱하기만하다. 어린아이가 가끔씩 골치가 아프며 몸에 우툴두툴 조그마한 콩알만한 것들이 보여 전남 순천에서부터 여



▲현재 우리나라는 촌충에 의한 질병 특히 유구조충의 애벌레로 인한 유구낭미충증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상당히 많아 문제시되는 질병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한국기생충박멸협회 전남지부의 알선으로 우리연구실까지 찾아와서 지금 고대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케이스도 있다. 그외 간질발작때문에 이혼하고 젓먹이를 안고 찾아

이런 기생충을 아십니까②

소·돼지고기에 기생하는 촌충.

오는 여자환자 등등 상당히 많은 환자가 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이와같은 기생충병이 어떻게 하여 생기는가를 알아보고져 한다.

조충의 속명은 지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촌백충, 촌식충, 백충, 비충 및 촌충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 조충증은 6~7종이라고 본다. 아주 보편적인 조충은 돼지고기를 날로 먹어서 감염되는 유구 촌충, 쇠고기를 날로 먹으므로 감염되는 무구촌충, 뱀, 바다생선이나 개구리의 날것으로 생기는 긴촌충과 동물에 주로 기생하는 왜소조충, 축소조충 및 개촌충이 있고, 가축에 흔히 기생하는 것으로 간혹 인체감염을 일으켜 위독한 증상을 나타내는 위립조충이 제주도의 가축에서 발견보고된 바 있다.

가장 흔한 것이 유구조충 및 무구조충인데 이들은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날 것이나 덜 익은 상태로 먹었을 때 생긴다. 과거에 비하여 경제성장에 따른 개인 소득이 많아지다 보니깐 소나 돼지고기를 먹는 회수가 많아지고 또 많이 먹는다. 이와같은 현상은 차츰 우리나라에 촌충의 발생빈도를 증가시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무구조충의 편절은 자동적으로 항문으로 배출되는고로 불쾌감을 느끼는 외에 별다른 증상없이 지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은 상복부동

통, 복부불안감, 식욕부진, 설사, 구토 및 불면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성충이 소장 에 있을때 유구조충의 경우도 상기증상과 비슷하나, 유구조충의 경우는 에벌레(유충)로 인한 문제가 야기된다. 즉, 기생유충의 수, 침해받은 기관과 인체내면역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유충의 기생부위를 보면 가장 쉽게 침해되는 기관은 피하조직이며 따라서 가장 많이 기생되는 부위가 된다. 이밖에 뇌, 안구, 심장에도 기생되는데 이때에는 중독한 증상이 생긴다. 뇌에 기생시에는 간질발작, 뇌막염증상이 나타나며, 치료가 곤란하며 난치, 불치로 불행하게도 불구자 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안구내 기생시에는 안구통, 시력장애, 시력소실등이 나타나기도 하며 수술이 불가능 할 때에는 안구적출을 요할 경우도 있다.

유구낭충증은 유구조충의 유충인 유구낭충에 의한 질병인데 유구조충은 무구조충과 비슷하여 납작한 많은 편절이 연결되어 머리, 목, 미숙편절, 성숙편절 및 수태편절로 구성되어 2-7m나 되는 기다란 촌충이다. 끝부분인 수태편절은 한편 질속에 3~5만개의 충란을 가지고 있으며, 머리부분에는 가시가 붙어 있다. 는 것이 특징이다. 수태편절의 충란이 분변과 함께 체외에 빠져나오면 중간숙주인 돼지에 의해 섭취되면 장에서 충란은 껍질을 벗겨지고 유구유충이 장벽을 뚫고, 작은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 몸속의 여러 장기나 조직에 가서 5~10mm 크기의 작은 주머니가 되며 그 속에 액체가 생긴다. 또한 소장에 기생된 유구조충이 차멀미나 심하게 토할 때 역류되

어 위에서 총란의 껍질이 벗겨져서 온몸으로 가기도 한다. 이렇게 된 것을 유구낭미충이라 하는데, 유구낭미충이 들어 있는 돼지고기를 사람이 먹으면 소화관 내에서 성충 즉 유구조충이 된다.

소화관에 성충을 가진 사람의 불결한 손을 통해 총란이 항문으로 부터 자기 입으로 운반되어 감염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사람에서도 돼지에서와 같이 여러 장이나 조직에 크고 작은 콩알만한 크기의 유구낭미충이 생긴다.

피하나 근육조직에 결절이 만져지는 경우에 의심될 수 있다. 피하 유구낭미충이 확인 되었으면 신경계통이나 뇌에 기생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된다.

피하유구낭미충은 외과적으로 적출해 내기도 하나, 가는 주사기로 결절속의 액체를 흡입시켜내면 없어지기도 한다.

뇌의 경우는 고립된 낭충이 피질에 있으면 적출하기 쉬우나, 뇌전체에 산재해 있거나 뇌실이나 뇌저에 있는 경우는 수술하기 힘들고, 수술의 위험성이 뒤따르므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눈에 생긴 낭충도 가급적 초기에 총체가 살아 있을 때 적출함이 좋다.

최근에 와서 “프라지판텔”을 사용하여 내과적 치료도 가능하다고 보고되어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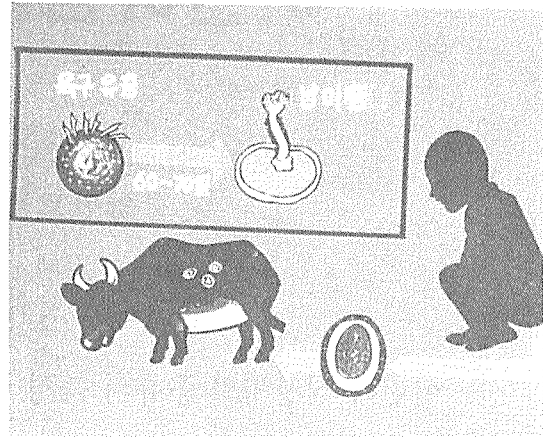
이와같은 무서운 촌충에 감염되지 않기 위하여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음식물에 유구조충이나 무구조충 총란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익혀 먹어야 한다.

소화관에 성충이 감염되어 있으면 빨리 구충함을 잊어서는 않된다. 또한 유구조충의 구충시에는 편질이나 총란이 완

이런 기생충을 아십니까 ②

소·돼지고기에 기생하는 촌충.

진히 체외로 배출케 하므로서, 구역질이 나 구토로 생기는 자가감염을 방지하여



▲무서운 촌충에 감염되지 않기 위하여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음식물에 유구조충이나 무구조충 총란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익혀 먹어야 한다.

야 된다. 재삼강조하는 것은 돼지고기나 쇠고기를 생으로 또는 덜 익혀 먹어서는 않된다는 사실이다.

(필자 = 고려의대 기생충학교수·의박)

